

2/22(화) 신명기 12–15장 형통한 날에 기억하라

12–26장은 <신명기 법전>이라 불립니다.

정착 이후에 백성들이 명심해야 할 규례들이 담겨있습니다.

광야생활과 정착생활은 다릅니다.

광야에서는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지만,

가나안에서는 이방민족을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.

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보면 눈과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.

지역의 신들을 궁금해 하며 들여다 볼 것입니다(12:29–30).

이스라엘이 왜(어떻게)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까? (9:1–5)

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추방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.

기존의 정착민들이 하나님의 땅을 죄로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.

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을 정화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.

죄로 가득했던 모든 것을 깨끗이 진멸해야 합니다(13:12–17,20장).

가나안의 거짓 신, 우상들을 탐구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(12:30).

이방신앙으로 미혹하는 자는 철저히 끊어내야 합니다(13장, 17:2–7).

하나님 신앙과 이방 신앙을 혼합해서도 안 됩니다(12장, 14:1–21).

하나님은 출애굽과 종살이를 언급하십니다.

노예이던 시절, 나그네, 객이었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.

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고 형통했을 때에,

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.

하나님께 받은 은혜를, 은혜롭게 흘려보내야 합니다.

(12:12,19,14:27–29, 15:7–11).

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.

은혜를 깨닫는 자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.

나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까?

❶ 형통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?

❷ 오늘의 형통함을 <자수성가>로 여기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신명기 12–15장